

## 행정기관의 신뢰가 생활·강력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생활·강력범죄의 심리적 전망을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 규 은<sup>†</sup>


상명대학교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논문은 사회학, 범죄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과 과정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입증하고,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여 범죄 두려움 해소의 응용 가능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지자체나 중앙정부와 같은 행정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향후 10년 동안 서울에서 생활·강력범죄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로 인해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이 이 관계에 조절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여성의 경우 행정기관을 불신할수록 생활·강력범죄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는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졌다. 반면, 남성의 경우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전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행정기관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국민, 특히 여성의 안전감과 행복감을 증진하며, 사회적 통합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생활·강력범죄, 행정기관 신뢰, 생활·강력범죄의 심리적 전망, 생활·강력범죄 두려움, 여성

<sup>†</sup> 교신저자: 한규은,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사범대학관 A315호

Tel: 02-2287-6162, E-mail: kyueun.han@smu.ac.kr

 Copyright © 2024,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023년 7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30대 남성 피의자가 흉기를 사용해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어 2023년 8월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최원중(당시 22세)이 차량을 인도로 돌진시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주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건 이후, 유사한 ‘묻지 마 범죄’를 모방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포착되었으며, 사전에 체포된 사례도 있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있다.

‘묻지 마 범죄’는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을 공격하여 상해나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범죄는 생활·강력범죄로 분류된다. 생활·강력범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폭력, 절도, 성폭력, 강도, 살인 등의 범죄를 포함한다. 서울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강력범죄 발생률은 전년 대비 8.3% 증가하였다(경찰청, 2024). 이러한 연속적인 범죄 발생은 서울이 낮에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화시켰다. 따라서 서울을 위협하게 인지하게 된 심리사회적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일상생활에서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왜 이러한 영향이 발생하는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국민의 안전감과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성별에 따

른 차별화된 치안 정책이 서울 시민의 범죄 두려움 해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사회학, 범죄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메커니즘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은 범죄와 관련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제시했으나,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인 원인과 과정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Alper & Chappell, 2012; Dear, 2007). 본 연구는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생활·강력범죄와 관련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또한, 성별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분석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이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행정기관의 신뢰와 생활·강력범죄와 관련된 두려움의 의미를 논의하고, 행정기관의 신뢰가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둘째,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생활·강력범죄의 두려움에 어떤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고,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전망이 이를 매개하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생활·강력범죄를 전망하고 두려움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탐색한다. 넷째,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여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연구 자료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재난사고 위험 인식 조사 데이터 중 생활·강력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활용하여 생활·강력범죄와 관련된 두려움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생활·강력범죄와 관련된 두려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쌓아 일상생활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는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는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심리적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심리적 전망은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와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4:**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심리적 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가?

#### 행정기관의 신뢰가 생활·강력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행정기관은 국가의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복지와 이익을 보호하며, 사회적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공직 의식과 윤리의식을 상실하고 부패와 비리에 빠질 경우, 국민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는 감소하게 된다. 신뢰는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

로,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통해 취약성을 수용하려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Rousseau et al., 1998).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는 제도적 신뢰로 분류되며(최예나, 2016), 이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과 행정기관 간의 관계에서 시민들이 해당 행정기관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와 관련된다. 정부 신뢰는 단순히 정부의 행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가치관과 신뢰 성향과도 연관된다(최성탁, 전별, 2019).

과거 연구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경찰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무질서가 범죄 두려움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며, 성별, 직접적 및 간접적 범죄 피해 경험 등이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다(홍명기, 장현석, 2015).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은 공직자의 부패, 횡령, 특혜, 무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국민들의 법과 질서에 대한 신뢰를 낮출 뿐 아니라 사회적 계약을 파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또한, 정부나 경찰과 같은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두려움을 증가시키며(김동록, 정의롭, 2023), 특히 생활·강력범죄의 발생에 대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생활·강력범죄란 일상의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폭력, 절도, 성폭력, 강도, 살인 등의 범죄를 의미하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침해하고 사회적 불안과 불만을 초래한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심리·사회적인 요소로, 이는 개인의 안전감과 행복감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고립과 분열을 증가시키기에 범죄의 실제 발생 확률보다 일상생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Mugford, 1994; Warr, 2000). 예

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범죄 두려움은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고(Lavrakas, 1982), 사회적 고립을 증가시키며(Kail & Kleinman, 1985),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Pearson & Breetzke, 2014; Burt et al., 2022).

사회학에서는 상향확신이론은 개인의 전반적인 경험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며(Sirgy et al., 2001; 김병섭, 안선민, 이수영, 2015), 이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통한 사회적 환경의 개선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행정기관의 신뢰와 범죄 두려움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Singer et al., 2019).

Dammert와 Malone(2003)은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안을 초래하며, 이는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밝혔다(Dammert & Malone, 2003). 또한, Visser와 동료들(2013)은 경찰에 대한 불신 혹은 일반적인 사회 불신이 사회 안전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켜 직접적으로 범죄 두려움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했다(Visser et al, 2013).

한국에서도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명철, 2018). 고명철(2018)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 구현 노력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형성하여 삶의 질을 높인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수용하려는 심리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일상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음을 보였다(고명철, 2018).

따라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강력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이 낮을 것이다(Singer et al, 2018). 이는 행정기관이 규율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이 범죄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Malone, 2010). 반대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으면 규율 통제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이는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높을 것이다.

####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심리적인 전망의 매개 효과

과거 연구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 범죄가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험뿐만 아니라(Warr, 2000; 박찬혁, 2023),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대한 지각, 즉 범죄에 대한 전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혔다(Mugford, 1984). 이러한 연구 결과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포라는 감정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범죄 발생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그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느낀다(Warr, 2000).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전망에 따른 두려움은 미디어 콘텐츠의 영향, 지역사회의 변화, 그리고 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뉴스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 강력 범죄가 보도될 때, 사람들은 범죄 위험을 더 크게 인지할 수 있으며, 해당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

라 예상함에 따라 더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Lee et al., 2019; Prieto et al., 2020). 특히 소셜 미디어와 뉴스에서 범죄가 과대 포장되거나 주요 이슈로 주목받으면, 사람들의 해당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범죄와 관련된 뉴스 콘텐츠가 미디어를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사람들은 해당 범죄가 자신에게도 발생할 가능성을 과대하게 전망하게 되고, 이는 해당 범죄에 대한 일상적인 두려움으로 표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생활환경의 변화, 안전감의 감소, 사회적 연대감의 약화 등의 지역사회의 변화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 범죄율이 상승하면, 그 지역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은 더 커진다(Warr, 2000). 이는 해당 지역에서 범죄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죄가 자주 발생할 것이라는 심리적 전망은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안전에 대해 더 큰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한다(Garofalo, 198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심리적 전망이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와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이의 부적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생활·강력범죄가 발생할 것이라는 심리적인 전망이 낮아질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e.g., Mwaniki & Maroko, 2020). 이상의 선행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심리적 전망은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와 생활·강력범죄 두려움 간의 부적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행정기관의 신뢰가 생활·강력범죄 두려움을

유발하는 과정에서의 성별차이: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생활·강력범죄 발생과 관련된 심리적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심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 Mugford(1984)에 따르면,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일수록, 예를 들어 나이가 많거나 미혼 여성일 경우, 실제 피해 경험과 상관없이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활·강력범죄와 관련된 두려움의 요인 및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활·강력범죄와 관련된 두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탐색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성별이라는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의 신뢰와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문헌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McDermott & Jones, 2022; Mugford, 1984). 과거 연구들은 성별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여성들이 남성보다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더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McDermott & Jones, 2022). 이는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사회 복지에 더 큰 관심을 가지며, 증세에 대해 호의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김운태, 유승호, 이훈희, 2013). 또한, 여성은 교육정책 등 여성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어,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더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오재립, 2004). 그

러나 이러한 성별 차이가 생활·강력범죄의 심리적 전망이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과거 연구에 따르면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직접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범죄 피해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발생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강소연, 하미경, 변기동, 2020). 특히 여성은 성폭력 범죄와 같은 생활·강력범죄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남성보다 더 크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범죄에 대한 공포나 다양한 범죄 피해를 연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김은영, 2012). 또한, 여성 범죄 피해자는 남성 피해자에 비해 범죄자와 모르는 사이일 가능성이 더 높으며(Kim, Park, & Lee, 2017), 이는 생활·강력범죄 중 ‘묻지 마 범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예측하지 못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경우 범죄에 있어서 이성적인 수준을 벗어난 수준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Cops & Pleysier, 2011). 국내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범죄 두려움은 주로 자신이나 자녀에게 나타나는 경향을 가지며, 생활·강력범죄와 같이 방어하기 어려운 범죄 유형에서 두려움이 더 높게 나타남을 밝혔다(노성호 & 신소라, 2021). 이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즉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경우에 여성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적게 느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생활·

강력범죄의 심리적 전망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모형은 아래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가설 3:** 행정기관의 신뢰,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심리적 전망,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 간의 매개 관계에서 여성의 경우 남성에게 비해 행정기관을 신뢰하지 않을수록 생활·강력범죄가 향후 10년 안에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 전망할 것이며 이는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높일 것이다. 반면 남성의 경우 이 관계가 약하거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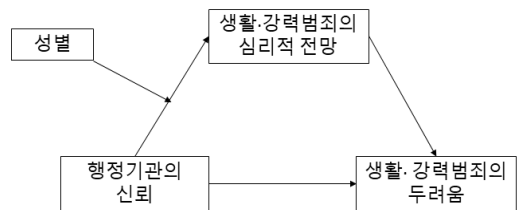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로, 소속 대학교 기관 윤리위원회의 심의면제 승인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IRB No: 2020-29).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2021년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https://data.si.re.kr/si-survey/65285>)에서 제공된 서울시민 인식 설문조사 자료이다. 이 자료는 15세 이상의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패널 설문조사

로, 재난 및 사고 위협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조사는 성별과 거주 지역별 쿼터 샘플링을 적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남성 492명(49.2%)과 여성 508명(50.8%)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은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에서 59명(5.9%), 동북권(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에서 291명(29.1%),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에서 127명(12.7%), 서남권(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에서 300명(30.0%),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223명(22.3%)이 거주하였다.

응답자 중 482명(48.2%)이 결혼한 상태였으며, 467명(46.7%)은 미혼이었고, 51명(5.1%)은 이혼, 별거 또는 사별 상태였다.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41.93세(SD = 14.36)였고, 평균 가구원 수는 2.95명(SD = 1.21)이었다.

####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서울연구원에서 실시한 ‘재난 사고 위협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설문조사’의 공공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서울연구원은 안전관리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서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재난 또는 사고 위협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전체 데이터 중 생활·강력범죄와 관련된 문항 및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와 데이터는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https://data.si.re.kr/si-survey/65285>)에 제공되어 있다.

####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

설문 응답자들은 재난·사고와 관련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하거나, 각종 활동을 수행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지자체, 중앙정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부터 ‘(4) 매우 신뢰한다’까지의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

설문 응답자들은 생활·강력범죄(일상의 생활환경을 매개로 발생하는 범죄, 예: 폭력, 절도, 성폭력, 강도, 살인 등)에 대해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지 ‘(1) 전혀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부터 ‘(5) 매우 공포스럽다’까지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발생과 피해의 정도와 관계없이 재난·사고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두려움 또는 공포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심리적인 전망

설문 응답자들은 서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강력범죄의 위험이 장래(10년 내외)에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를 ‘(1)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다’부터 ‘(5)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해질 것이다’까지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 인구통계학적 정보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측정되었으며, 기타 성별에 대한 선택지는 없었다. 거주 지역은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으로 구분하여 측정되었다. 자료 수집 시 성별과 거주 지역 비율에 따라 균형을 맞춘 표본수 모집을 적용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나이, 혼인 여부, 가구원 수 등이 측정되었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8.0과 SPSS PROCESS Macro(v.2.16)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먼저, 성별, 행정기관의 신뢰,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심리적인 전망, 생활·강력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기술 통계치와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one-way ANOVA 분석을 통해 각 변인에 대해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행정기관의 신뢰와 생활·강력범죄의 두려움 간의 관계에서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전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SPSS Macro를 이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어서, 생활·강력범죄의 전망에 대한 성별과 행정기관의 신뢰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의 신뢰, 생활·강력범죄의 전망, 생활·강력범죄의 두려움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7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과 Johnson-Neyman 기법을 통해 확인하였다(Hayes & Scharkow, 2013).

결 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차이 검정

주요 변인들의 성별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표 1 참조), 생활·강력범죄의 심리적 전망( $F(1, 998) = 50.968, p < .001, \eta^2 = .049$ )과 생활·강력범죄의 두려움( $F(1, 998) = 79.565, p < .001, \eta^2 = .074$ ) 수준이 여성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Aguinis와 동료들(2005)의 기준에 따르면 다소 작거나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를 지녔다(Aguinis et al., 2005). 반면, 행정기관의 신뢰에서 성별 차이( $F(1, 998) = .970, p = ns, \eta^2 = .001$ )는 유의하지 않았다.

행정기관의 신뢰가 생활·강력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성별(남 = 1, 여 = 2)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향후 10년간 서울에서 강력범죄가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r = .220, p < .001$ ), 생활·강력범죄로 인한 두려움(공포, 무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250, p < .001$ ). 행정기관의 신뢰는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심리적 전망( $r = -.137, p < .001$ )과 두려움( $r = -.125, p < .001$ )

표 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 차이

변인	M(SD)		F
	남(n = 492)	여(n = 508)	
행정기관의 신뢰	2.665(.622)	2.703(.603)	.970
생활·강력범죄 전망	3.169(.892)	3.579(.922)	50.968***
생활·강력범죄 두려움	3.494(.937)	4.000(.857)	79.565***

\*  $p < .05$ , \*\*  $p < .01$ , \*\*\*  $p < .001$



표 2. 변인 간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표

(N = 1000)	1	2	3	4
1.성별	-			
2.행정기관의 신뢰	.031	-		
3.생활·강력범죄 전망	.220 <sup>***</sup>	-.137 <sup>***</sup>	-	
4.생활·강력범죄 두려움	.250 <sup>***</sup>	-.125 <sup>***</sup>	.571 <sup>***</sup>	-
<i>M</i>	1.508	2.684	3.377	3.559
<i>SD</i>	.500	.612	.930	.986

\*  $p < .05$ , \*\*  $p < .01$ , \*\*\*  $p < .001$

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표 2 참조). 즉, 행정기관을 불신할수록 생활·강력범죄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로 인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심리적 전망은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r = .571, p < .001$ ). 생활·강력범죄가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할수록 생활·강력범죄와 관련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심리적 전망과 두려움은 정적 상관을 보이며, 이와 함께 행정기관의 신뢰는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심리적 전망과 두려움과 부적 상관을 나타냄을 확인함으로써

가설 1이 검증되었다.

####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심리적인 전망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표 3 참조), 행정기관의 신뢰가 낮을수록 향후 10년간 생활·강력범죄가 더 자주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1단계,  $B = -.208, p < .001$ ). 다음 단계에서 행정기관의 신뢰가 종속변인인 생활·강력범죄와 관련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행정기관의 신뢰가 낮을수록 생활·강력범죄의 두려움이 높았다(2단계,  $B = -.152, p < .001$ ). 마지막 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심리적 전망은 생활·강력범죄와 관련된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3단계,  $B =$

표 3. 생활·강력범죄 전망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i>B</i>	<i>t</i>	<i>F</i>
1	행정기관의 신뢰	생활·강력범죄 전망	-.208	-4.366 <sup>***</sup>	19.058
2	행정기관의 신뢰	생활·강력범죄 두려움	-.152	-3.160 <sup>**</sup>	9.998
3	행정기관의 신뢰 생활·강력범죄 전망	생활·강력범죄 두려움	-.054 .469	-1.258 16.648 <sup>***</sup>	144.951

\*  $p < .05$ , \*\*  $p < .01$ , \*\*\*  $p < .001$

.469,  $p < .001$ ). 이때 행정기관의 신뢰는 생활·강력범죄와 관련된 두려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3단계,  $B = -.054$ ,  $p = ns$ )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심리적 전망이 행정기관의 신뢰와 생활·강력범죄 두려움 간의 관계를 완전히 매개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신뢰와 생활·강력범죄 두려움의 관계에서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심리적 전망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 2가 검증되었다.

**행정기관의 신뢰,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심리적인 전망과 두려움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행정기관의 신뢰가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심리적 전망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Hayes와 Scharkow(2013)의

PROCESS model 7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표 4 참조), 성별은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심리적 전망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생활·강력범죄가 더 자주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t = 4.267$ ,  $p < .001$ ), 생활·강력범죄의 심리적 전망에 대한 성별과 행정기관의 신뢰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미하였다( $t = -2.695$ ,  $p < .01$ ). 또한,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심리적 전망이 높을수록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 = 16.648$ ,  $p < .001$ ). 즉, 행정기관의 신뢰는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심리적 전망을 통해 생활·강력범죄의 두려움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성별에 따라 이 효과가 조절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간접효과의 유의

표 4.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종속변인: 생활·강력범죄 전망		
	비표준화 계수		<i>t</i>
	<i>B</i>	<i>SE</i>	
상수	2.355	.400	5.837***
행정기관의 신뢰	.154	.146	1.055
성별	1.089	.255	4.267***
행정기관의 신뢰 x 성별	-.250	.093	-2.695**
	종속변인: 생활·강력범죄 두려움		
	비표준화 계수		<i>t</i>
	<i>B</i>	<i>SE</i>	
상수	2.312	.161	14.352***
행정기관의 신뢰	-.054	.043	-1.258
생활·강력범죄 전망	.469	.028	16.648***

\*  $p < .05$ , \*\*  $p < .01$ , \*\*\*  $p < .001$

표 5. 성별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성별	조절변수의 각 수준별 조건부 간접효과			
		boot 간접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생활·강력범죄 전망	남성	-.096	.065	-.223	.032
	여성	-.345	.066	-.475	-.216

boot LLCI=boot 간접효과의 95%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 값, boot ULCI=boot 간접효과의 95%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 값;

\*  $p < .05$ , \*\*  $p < .01$ , \*\*\*  $p < .001$

미성을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분석하였다(표 5 참조). 부트스트래핑 설정 횟수는 10,000번이었으며, Frazier와 동료들(2004)이 상호작용 효과의 적절한 해석을 위해 권장한 대로 비표준화 계수(B)를 비교하였다. 신뢰구간은 95%로 설정되었으며, 여성의 신뢰구간에는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고, 남성의 신뢰구간에는 0이 포함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여성의 경우 행정기관을 불신할수록 생활·강력범죄가 향후 10년간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으나, 남성의 경우 이러한 관계는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그림 2 참조). 따라서 행

정기관의 신뢰,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심리적 전망, 그리고 생활·강력범죄 두려움 간의 매개 관계에서 성별이 생활·강력범죄 전망을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 3이 검증되었다.

이는 행정기관의 신뢰가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직접효과)이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심리적 전망에 의해 매개(간접효과)되며, 이러한 간접효과의 크기가 여성의 경우에만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성의 경우 행정기관을 신뢰하지 않을수록 향후 10년간 생활·강력범죄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 전망하였으며 이는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성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신뢰의 정도가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논 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치안 인식 관련 설문을 통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생활·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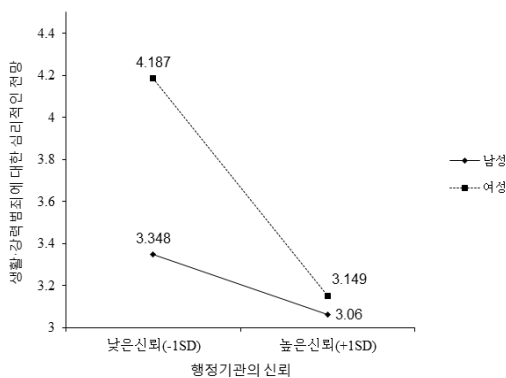


그림 2. 행정기관의 신뢰와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심리적인 전망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범죄에 대한 심리적 전망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두려움을 유발한다는 가설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생활·강력범죄의 심리적 전망을 매개변수로, 성별을 조절 변수로 설정하고 조절된 매개 모형을 이용하여 가설 검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행정기관의 불신이 클수록 생활·강력범죄와 관련된 두려움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커졌으며, 이 관계는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심리적 전망에 의해 완전히 매개됨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동일한 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고, 법원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다는 상반되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문인수, 2021). 본 연구에서는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생활·강력범죄의 두려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행정기관의 불신이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심리적 전망을 통해 두려움을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기관의 불신이 심리적으로 생활·강력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인식하게 하고, 이는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킨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기초가 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조명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적, 인지적 반응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즉,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행정기관의 신뢰를 기반으로 범죄율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에서 기인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기관의 불신이 생활·강력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범죄와 관련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 범죄의 위험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기관

의 신뢰에 기반하여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심리적 전략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범죄 예방 전략의 핵심 부분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 구축 뿐 아니라 인지적인 해석, 즉 범죄 발생에 대한 전망을 통해 두려움을 야기한다는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인 정보제공 등의 인지적인 해석의 변화를 통해 일상에서의 범죄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는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성별과 행정기관의 불신 간 상호작용이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존의 취약자 가설은 나이와 성별이 범죄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조절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언급했으나(최재용, 임하늘, 이운호, 2015),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 행정기관의 불신과 생활·강력범죄 두려움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즉, 성별은 행정기관의 불신이 생활·강력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전 과정을 조절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생활·강력범죄 두려움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며, 성별에 따른 범죄 예방 정책과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 증진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Yulmaz et al., 2023; Anand & Santos, 2007). 즉, 행정 기관의 투명성, 의사소통, 대응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은 여성이 경험하는 범죄에 대한 불균형한 두려움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히나 여성을 위한 공공 안전 캠페인이나 행정 기관이 여성의 범죄와 폭력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공공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개인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지

만, 일부 한계도 존재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000명의 사람들을 성별과 지역의 비율에 맞게 표본추출하였다는 점에서 표본의 균형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나, 설문지 내용을 연구자가 조정할 수 없었고, 사용된 요인에 대한 설문지 문항이 더 많고 타당화가 이루어졌다면 더욱 과학적인 연구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범죄 두려움과 범죄 전망에 대한 측정 변수를 정교화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공포를 관리하고 줄이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범죄율 감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신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심리적 웰빙과 안전감이 공공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 정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 예방 전략의 개발 및 실행 뿐 아니라, 범죄에 대한 사실적 인식을 증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행정기관이 범죄 예방과 처리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을 경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대응 전략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공공 안전과 행복,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추후 행정기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여

성 등 취약계층의 신뢰 구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범죄인식과 제도적 신뢰에 대한 향후 학제 간 연구의 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성별 차별화된 치안 정책을 통해 서울 시민의 범죄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서울시 범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소연, 하미경, 변기동 (2020). 범죄두려움 취약도에 따른 무질서 및 사회통제 인지 경향에 관한 연구 - 청년층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6(4), 31-39.
- 고명철 (2018).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 신뢰에 의한 지역사회 생활의 질 (community QoL) 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2), 119-146.
- 김동록, 정의롭 (2023).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 외국인의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2(4), 1-26.
- 김병섭, 안선민, 이수영 (2015). 거시적 사회경제요인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분석: 우리나라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논총*, 53(2), 97-121.
- 김윤태, 유승호, 이훈희 (2013). 한국의 복지태도의 정치적 역동성: 탈계급성과 정치적 기회의 재평가. *한국학연구*, 통권, 183-212.
- 김은영 (2012). 범죄피해에 대한 공포의 원인과 여성: 성폭력범죄의 두려움과 여성의 범죄에 대한 공포는 관련이 있는가? *한국치안행정논집*, 8(4), 169-193.

- 노성호, 신소라 (2021). 범죄두려움의 성별 차이에 대한 고찰. *한국경찰학회보*, 23(6), 215-248.
- 문인수 (2021). 범죄피해 두려움 영향요인 분석: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8(3), 17-29.
- 박찬혁 (2023). 빈곤지역의 범죄예방교육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안행정논집*, 20(2), 59-76.
- 오재림 (2004).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 정책에 관한 연구: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여성 정치참여와 여성교육 및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3(1), 107-147.
- 최성락, 전 별, (2019).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정부 요소 및 개인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2), 238-248.
- 최예나 (2016).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방정부연구*, 20(3), 69-88.
- 최재용, 임하늘, 이윤호 (2015). 미디어 노출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신체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15(3), 175-204.
- 홍명기, 장현석 (2015). 범죄 두려움 요인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공공정책연구*, 32(1), 1-28.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n.d.). <https://data.si.re.kr/si-survey/65285>
- 경찰청. (n.d.). KOSIS 경찰청범죄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21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211&conn_path=I3)
- Aguinis, H., Beaty, J. C., Boik, R. J., & Pierce, C. A. (2005). Effect size and power in assessing moderating effects of categorical variables using multiple regression: a 30-year re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1), 94-107. <https://doi.org/10.1037/0021-9010.90.1.94>
- Alper, M., & Chappell, A.T. (2012). Untangling Fear of Crime: A Multi-theoretical Approach to Examining the Causes of Crime-Specific Fear. *Sociological Spectrum*, 32(4), 346-363. <https://doi.org/10.1080/02732173.2012.664048>
- Anand, P., & Santos, C. (2007). Violent crime, gender inequalities and well-being: models based on a survey of individual capabilities and crime rates for England and Wales. *Revue d'économie politique*, 117(1), 135-160. <https://doi.org/10.3917/redp.171.0135>
- Burt, C. J., Kondo, M. C., Hohl, B. C., Gong, C. H., Bushman, G., Wixom, C., & Zimmerman, M. A. (2022). Community greening, fear of crime, and mental health outcom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69(1-2), 46-58. <https://doi.org/10.1002/ajcp.12544>
- Cops, D., & Pleysier, S. (2011). 'Doing gender' in fear of crime: The impact of gender identity on reported levels of fear of crime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1(1), 58-74. <https://doi.org/10.1093/bjc/azq065>
- Dammert, L., & Malone, M. F. T. (2003). Fear of crime or fear of life? Public insecurities in Chile.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22(1), 79-101. <https://doi.org/10.1111/1470-9856.00065>
- Dear, J. (2007). Place and fear: a study of the fear of violent crime among students at the

- University of Portsmouth (Doctoral dissertation).
- Garofalo, J. (1981). The fear of crime: Caus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Crimonal Law & Criminology*, 72, 839-857.
- Hayes, A. F., & Scharnow, M. (2013). The relative trustworthiness of inferential tests of the indirect effect in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does method really matter? *Psychological science*, 24(10), 1918-1927.  
<https://doi.org/10.1177/0956797613480187>
- Kail, B. L., & Kleinman, P. H. (1985). Fear, crime, community organization, and limitations on daily routines. *Urban Affairs Quarterly*, 20(3), 400-408.  
<https://doi.org/10.1177/004208168502000309>
- Kim, J. Y., Park, J., & Lee, N. R. (2017). Robberies against Female and Male Victim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2(2), 247-261.  
<https://doi.org/10.18205/kpa.2017.22.2.007>
- Lavrakas, P. J. (1982). Fear of crime and behavioral restrictions in urban and suburban neighborhoods. *Population and Environment*, 5, 242-264.  
<https://doi.org/10.1007/BF01257073>
- Lee, S. S., Choi, K. S., Choi, S., & Englander, E. (2019). A test of structural model for fear of crime in social networking sites. *International Journal of Cybersecurity Intelligence & Cybercrime*, 2(2), 5-22.  
<https://www.doi.org/10.52306/02020219SVZL9707>
- Malone, M.F. (2010). The Verdict is in: The Impact of Crime on Public Trust in Central American Justice Systems. *Journal of Politics in Latin America*, 2(3), 99-128.  
<https://www.doi.org/99.10.1177/1866802X1000200304>
- McDermott, M. L., & Jones, D. R. (2022). Gender, sex, and trust in government. *Politics & Gender*, 18(2), 297-320.
- Milfont, T. L., & Duckitt, J. (2004). The structure of environmental attitudes: A first-and second-orde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4(3), 289-303.  
<https://doi.org/10.1017/S1743923X20000720>
- Mugford, S. (1984). Fear of Crime—Rational or not? A discussion and some Australian data.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17(4), 267-275.  
<https://doi.org/10.1177/00048658840170040>
- Mwaniki, J. M., & Maroko, G. C. O. (2020). Title community policing and crime prevention in Kirinyaga country-Kenya.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Innovation in Social Science*, 4, 330-341.
- Pearson, A. L., & Breetzke, G. D. (2014). The association between the fear of crime, and mental and physical wellbeing in New Zealand.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9, 281-294.  
<https://doi.org/10.1007/s11205-013-0489-2>
- Prieto Curiel, R., Cresci, S., Muntean, C. I., & Bishop, S. R. (2020). Crime and its fear in social media. *Palgrave Communications*, 6(1), 1-12.  
<https://doi.org/10.1057/s41599-020-0430-7>
- Rousseau, D. M., Sitkin, S. B., Burt, R. S., & Camerer, C. (1998). Not so different after all:

-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393-404.  
<https://doi.org/10.5465/amr.1998.926617>
- Singer, A. J., Chouhy, C., Lehmann, P. S., Walzak, J. N., Gertz, M., & Biglin, S. (2019). Victimization, fear of crime, and trust in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A cross-national analysis. *Crime & Delinquency*, 65(6), 822-844.  
<https://doi.org/10.1177/001112871878751>
- Sirgy, M. J., Efraty, D., Siegel, P., & Lee, D. J. (2001). A new measure of quality of work life (QWL) based on need satisfaction and spillover theor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5(3), 241-302.  
<https://doi.org/10.1023/A:1010986923468>
- Visser, M., Scholte, M., & Scheepers, P. (2013). Fear of crime and feelings of unsafety in European countries: Macro and micro explanations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The Sociological Quarterly*, 54(2), 278-301.  
<https://doi.org/10.1111/tsq.12020>
- Warr, M. (2000). Fear of crime in the United States: Avenues for research and policy. *Criminal justice*, 4(4), 451-489.
- Yilmaz, N. A., Golge, Z. B., & Yukselglu, E. H. (2023). Stalking and culture; Old behavior, new crime. *Novel Forensic Research*, 2(3), 45-9.  
<https://doi.org/10.5455/NOFOR.2023.10.011>

1차원고접수 : 2024. 08. 06.

심사통과접수 : 2024. 09. 17.

최종원고접수 : 2024. 09. 30.



The Impact of Trust in Administrative Agencies on  
Fear of Everyday and Violent Crimes: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Gender through Psychological  
Outlook on Everyday and Violent Crimes

Kyueun Han

Sangmyung University

Research on the fear of everyday and violent crimes spans multiple disciplines, including sociology, criminology, and psychology. However, the underlying causes and processes that contribute to this fear remain unclear.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plore the impact of trust in administrative agencies on the fear of everyday and violent crimes, and to identify the variables that mediate and moderate this relationship. By understanding these mechanisms, we can better inform strategies to alleviate fear of crime. In an analysis of 1,000 Seoul citizens, the findings revealed that individuals who harbor distrust towards administrative bodies, such as local or central government, are more likely to predict an increase in everyday and violent crimes over the next decade. This perception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their fear of these crimes in daily life. Moreover, the study found that gender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in administrative agencies and psychological outlook on crime. Specifically, women who expressed distrust in administrative agencies were more likely to anticipate an increase in crime, which in turn heightened their fear. In contrast, for men, the level of trust in administrative agencie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ir crime outlook.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nhancing trust in administrative agencies could play a crucial role in improving citizens' sense of safety and well-being, particularly for women, thereby promoting social integration and harmony.

*Key words* : everyday and violent crimes, trust in administrative agencies, psychological outlook on crime, fear of crime, women